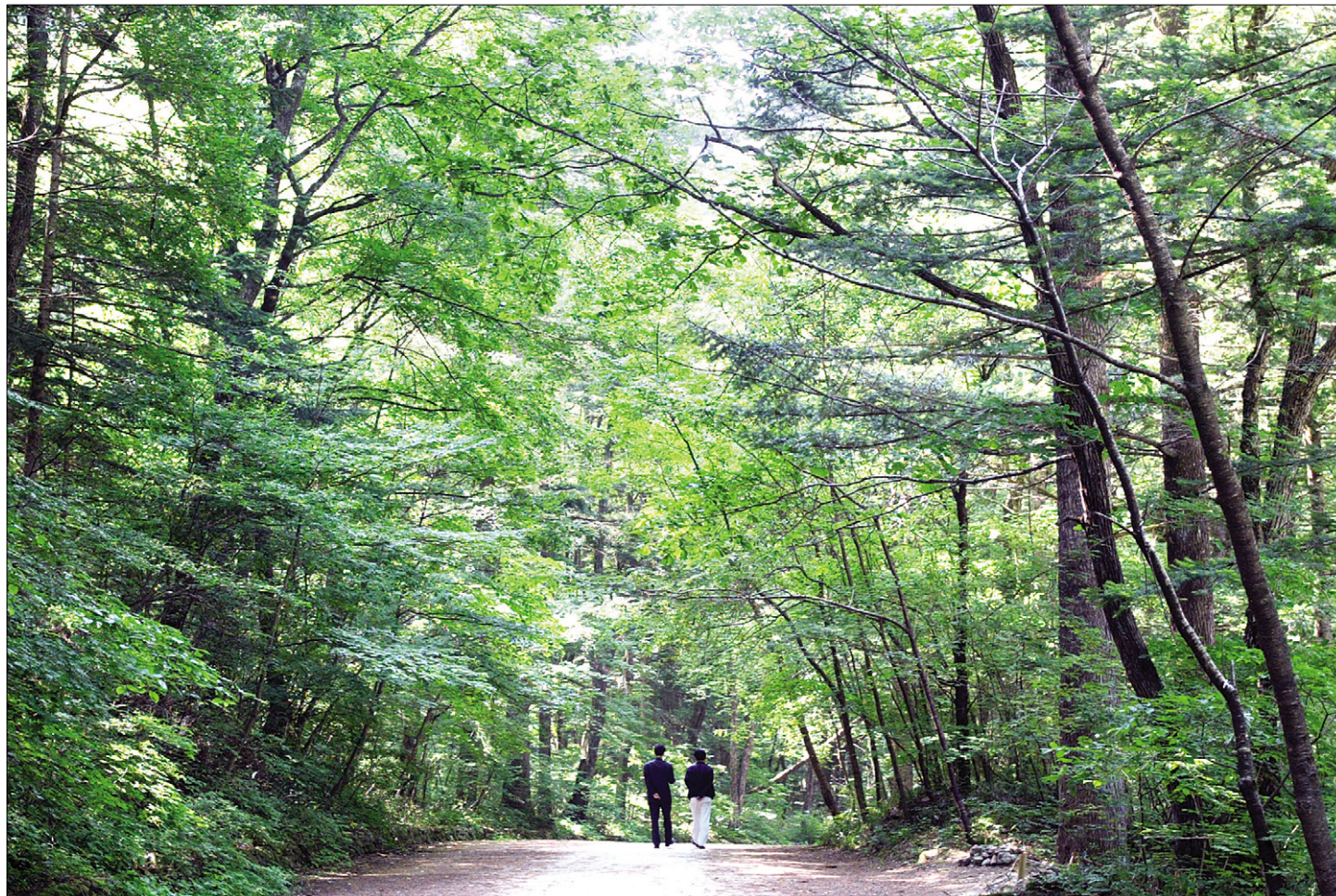


휴식 더하기 지혜, 책으로 휴가 떠나볼까

■ 불출협이 권하는 올 여름 꼭 읽어야 하는 불서 22선(무순)



<현대불교 자료사진>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To Do 리스트'에 '책 읽기'를 적는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일단 계획은 세웠지만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주중에는 일하러, 주말에는 밀린 약속 쫓아다니느라 바쁘다. 통근 시간에 읽어보려고 책을 들고 다니기는 하나 버스·지하철에 사람이 만원인지라 손이 자유롭지 못하다. 집에 와서라도 읽어보려고 취침에 들기 전 책을 펼친다. 5~10분도 안돼서 한 두 장 읽다가 바로 꿀아떨어진다. 핑계라면 핑계지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나 할까?

각자의 계획을 만회(?)할 독서의 계절이 왔다. 여름방학·휴가철 말이다.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 이하 불출협)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교출판문화협회 추천-올 여름에 읽는 불서 22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불출협은 '올 여름에 읽는 불서' 선정을 위해 7월 6~15일 9일 동안 18개 회원사로부터 불교계 출판사들이 최근 2년간 출간한 불서 중 학술서를 제외한 성인용 교양불서를 대상으로, 자사도서 5권, 타사도서 5권씩을 추천 받아 15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불출협은 "여름에 많은 스님들은 전국의 사찰에서 하얀기 정경을 하고 있지만, 스님들과 같은 방법의 수행이 어려운 재가자에게 휴가철을 맞아 '불서읽기'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선정 작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출협은 또 "추천된 '올 여름에 읽는 불서' 들은 재가자들이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지혜를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자신과 지켜지지 못한 약속을 불서읽기로 다지고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해보자.

정리=이아은 기자



젊은 날의 깨달음 | 헤민 스님 | 클리어마인드
하버드대 재학시절 출가한 스님이 지난 10년 동안 교계 매체에 발표한 글들과 최근에 쓴 새로운 글들을 모은 것이다.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을 통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스님은 일류 대학만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학력지상주의를 꼬집으면서, 성공과 부를 이루는 것보다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 | 천진, 현현 스님 | 불광출판사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를 읽고 지리산 홍서원에 찾아온 사람들이 풀어놓은 가지각색의 사연에 따라 설해준 법문집. 자살, 이별 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 행복하지 않은 원인, 고통

받는 원인을 밝혀준다. 두 저자의 은사 정봉무 스님이 이들의 괴로운 마음을 일일이 보듬어주면서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준다. 스님들과 사람들의 이야기, 지리산 풍광이 수채화처럼 펼쳐진다.

커피와 달마 | 성재현 | 한결들더
좌선을 '산책길'에 비유하며 쉽고 즐거운 좌선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꾼 남자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15분' 동안 바르게 앉아 좌선을 하는 것이 삶에 어떤 도움과 변화를 가져오는지 흥미진진하게 전달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적 깨달음을 얻게 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불교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 일아 스님 | 민족사
수녀가 되려다 불교에 이끌려 비구니가 된 저자가 자신이 썼던 칼럼과 자신의 삶, 수행, 학문 이야기들을 모았다. 붓다의 초기 경전인 빠알리 경전의 가르침과 같은 주옥같은 지혜의 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바른길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글,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앙일보에 실린 저자의 칼럼 등이 실려 있다. 마지막 장은 출가 수도 생활을 기점으로 한 저자의 삶을 담은 것으로 권 마리마테오 수련장님, 법정 스님, 인홍 스님 등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훌륭한 스승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처님의 생애(중단본) |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 | 조계종출판사

부처님의 생애를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팔리본, 산스크리트본, 한문본 경전 등을 근원 자료로 하고 인도고대사를 참조해 검증된 학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불교입문서. 이 책은 개인적인 저술에서 벗어나 불타론 관련 전공 학자들이 공동으로 엮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집대성하고, 글자 한 자 한 자 세심하게 살피며 인간적이면서 초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담았다. 부처님의 삶과 깨달음, 전법의 가르침 속에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미국불교사 | 릭 필즈 저, 한창호 번역 | 운주사
1992년까지의 미국불교사를 생생하고 세밀하게 엮어냈다. 불교가 유럽을 거쳐 미국에 뿌리내리기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한 충돌, 교섭, 융합에 대해서도 다뤘다. 미국인 특유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엿 볼 수 있다. 또한 미국불교에서 주류적으로 자리잡은 일본불교와 티베트불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 등도 미국불교에 녹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미국불교의 핵심에는 재가불교와 생활불교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권으로 읽는 아함경 | 홍사성 | 불교시대사
아함부 경전 가운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주옥같은 알맹이들을 간추렸다.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인과응보, △행복과 평화, △자비와 공덕, △올바른 생활 △노력과 정진 △나눔과 선행 △포교와 설법 △반성과 참회 △겸손과 양보 그리고 인욕 △수행의 길 △마음 닦기 △정당한 삶 △사색과 성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한 권으로 묶었다.

선객 | 법광 스님 | 한결들더
1998년 가을, 통도사에서 3주간에 걸쳐 수백 명의 스님들을 지도하던 때의 일화, 출가하기 3일전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된 일화 등 스님의 일상과 수행 정진에 얽힌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사진작가 못지않은 해관 스님의 선운사 주변 풍경사진을 함께 수록해 청량하고 잔잔한 분위기를 더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증 4. 국제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우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주세요.

탐방스님 만 해 합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음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